



4면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속도'

전주매일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음 8월 10일) 제30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태풍대비 철저 도민안전 우선”

김관영 도지사, “태풍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해
예비특보 발표시 비상체계 즉각 가동 총력 대응을”
예산 확보 관련 공조 강화 등 전략 대응 모색도 주문
“7일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직접 참석”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일 실국장·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태풍 북상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
해 철저한 대비와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에서는 먼저 도민안전실
장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예상경로
와 강도 소관 분야 시설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등 조치사항과 피해
최소화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태풍 진행상
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비
특보 발표시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
동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며, “
무엇보다 사전점검·대비를 철저히
완벽하게 시행해 재산피해 최소화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2023년 국가
예산 확보 국회 단계 대응 쌀 수급안
정 대책 추진상황, 추석연휴 코로나19
의료방역 대응체계 구축 등 주요업무
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 전북도 833.085억원이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제출됐다”며 “이
제는 국회단계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는누리보강·절차이행·공조강화 등 전
략적 대응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농축산식품부장으로
부터 7일 국회에서 예정된 ‘쌀값 안정

대책 공동성명’ 참여방안을 보고받고,
“인정적 식량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내 농어민 단
체와도 적극 소통할 것”을 지시하고,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조정해서사
도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의 이런 행동
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
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실국장에게 9월 도
의회 철저 대응과 함께 정책 네트워크
강화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9월 도의회 회기에 앞서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개편
안, 조례안 사전 설명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군 행사시 반드시 지역구
도의원을 초청, 지역 애로사항 청취
등 수시로 소통·협력하는 방안을 모
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위원회 참여 인사에
게 도정 현안 정책동향 입수 및 전북
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위원회 전북
도 인사 참여 현황을 파악·정비하고,
위원 임기 만료 등으로 위원회 재구성
시 전북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
록 사전 동향을 파악해 적극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자치경찰위, 지구대 파출소 112순찰차 홍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
규)는 전국 최초로 시군 지구대·파출
소 112순찰차 200대에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도심지역뿐만 아
니라 농촌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112
순찰차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써 도내 방문 귀성객들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지구대·파출소 사무가 국가경찰사
무로 분류돼 112 순찰차 홍보가 어려
운 실정에 자치경찰은 전북경찰청 생
활안전과 등과의 공조로 시·군 경찰
서 관계자를 적극 설득해 전국 최초로
이번 추석 전에 112 순찰차에도 부착
하기로 합의했다. /김경수 기자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성료

전북도청서 3년 만에 열려
제수용품 최대 30% 할인
30일까지 생생장터 등서도
직거래 장터 제품 구매 가능

전북도청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라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직거래 행사가 성황리에 개
최됐다.
이번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인터넷으로 운영됐던 행사를 3년 만
에 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리며, 이날
장터에서는 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했다.
지난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나인권 전라북도의
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신재경 전라
북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
센터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40개 기
업, 100개 제품 판매대를 도청 서편
광장에 마련하고 3일까지 직거래 할
인 판매방식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는 전북 중기청
이 준비한 ‘22년 대한민국 동행 세
일도 열려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대’에 함께 진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
석해 “도정은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을 만들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지역특화 품목 육성과 농촌
관광, 유통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2일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 전북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직거래 행사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가 판매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한가위 장터를 통
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많은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
입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풍성
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관
매대를 돌며 “도청에서도 우리 지역
의 농수산식품이 외국에 많이 수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민

등 생산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을 전했다.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한 마을기
업 대표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
해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마을기업의 품질 좋은 상품을 알리
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잠시라도
코로나 19의 어려웠던 시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는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
으로 도내 8개 기관이 공동 협약을
통해 준비했으며, 이후에도 도내 마
을기업 매출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하자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선보
이는 제품들은 오는 30일까지 전라
북도 대표 농수산물 종합 쇼핑몰
전북생생장터(freshp.com)와 우체국
쇼핑몰(e-post) 기획전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김경수 기자

“내년에 또 만나요”... 무주반딧불축제 ‘대단원’

3년 만에 개최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4일
폐막식을 갖고 9일간 진행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는 4일 오후 무주 등나무동장에 마
련된 특설무대에서 진용훈 위원장의
폐막선언과 함께 생태문화예술, 그리고
빛이 아름답게 접목된 모든 프로그램
을 마무리했다.
이날 폐막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
해 이해양 군의회 의장, 관광객과 군
민들이 참여해 ‘개봉발레’를 합창하면
서 아쉬운 축제의 정을 내렸다.
황인홍 군수는 폐막사를 통해 “이번
반딧불축제는 아간에 진행되는 빛의

하이라이트 영상 등 선배

향연과 환상적인 불거리와 먹거리 그
리고 매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각종
문화공연으로 무주를 찾은 평생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감격을 선사한 축제
였다”며 “내년에도 더욱 의미 있고 값
진 축제를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
로서 손색이 없는 국내 최고의 축제
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답게 품격
있는 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
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군민여러
분들과 공직자, 축제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
다.

특히 5분여 동안 진행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그동안 9일 동안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 영상을 통해 다시 기
억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져 관심을 모
았다.
이날 폐막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어
린이들이공연과 남대천음악회, 태권도
시범단 공연, 군민통합공연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 제2부 축하공연에서는 국내 인
기가수로 다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김용익, 조항조, 김다현씨의 무대
가 있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시도된 드론 쇼의 경우 남대천 창공에
서 저·고공 비행과 반딧불이의 빛,
그리고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형상을

묘사한 환상의 쇼가 진행돼 관광객들
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진용훈
위원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낀 국민정서를 반영했다”며 “축제장
곳곳에 반딧불이를 연상할 수 있도록
은은하게 빛나는 야간 조형물 설치와
이동, 연인 친구 가족단위 방문객들
에게 누구나 잊지 못할 추억의 축제였
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날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는 환경축제답게 반
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1박2일 생
태체험, 천체를 관찰할 만다별 소풍,
남대천 생명플러스, 전통놀이 행사인
낙화놀이, 조선왕조실록 모형전시교본
이간행렬 재연 등을 손조롭게 진행하
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
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https://www.sunchang.go.kr

“자연이 수놓은 보물”

관광 순창

도시 순창

산길을 걷고 바위길을 오르고 구름다리를 건너고
일상에 쯤뜨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순창이 있습니다

순창군 SUNCHANG